

# 잊지 못할 빅토리아에서의 4주

[김승민]

간호학과 202320770 강원대학교

이메일: smkim7091101@naver.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 들어가는 말

이번 여름방학 동안 새로운 문화와 학문적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그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연수지는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교로, 캐나다는 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해외에 나가 한 달 동안 지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많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방문하는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은 제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수 기간 동안 경험했던 학업적 및 문화적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지식과 느낀 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연수대학 소개

제가 연수를 다녀온 곳은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교로, 영어와 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ELC(English Language Centre)'로, 약 4주 동안 진행되는 영어 및 문화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ELC는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와 문화 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학생들이 참여해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빅토리아 대학교에는 2달 프로그램, 1년 프로그램, 빅토리아 대학교를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의 어학원 등 다양한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풍경으로 잘 알려진 나라인데, 빅토리아 대학교는 이러한 캐나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캠퍼스는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대학교 안에서 사슴, 토끼, 다람쥐 같은 야생 동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높고 커다란 나무들과 숲이 캠퍼스를 이루고 있으며, 학교 안에는 숲 속 산책로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산책을 즐기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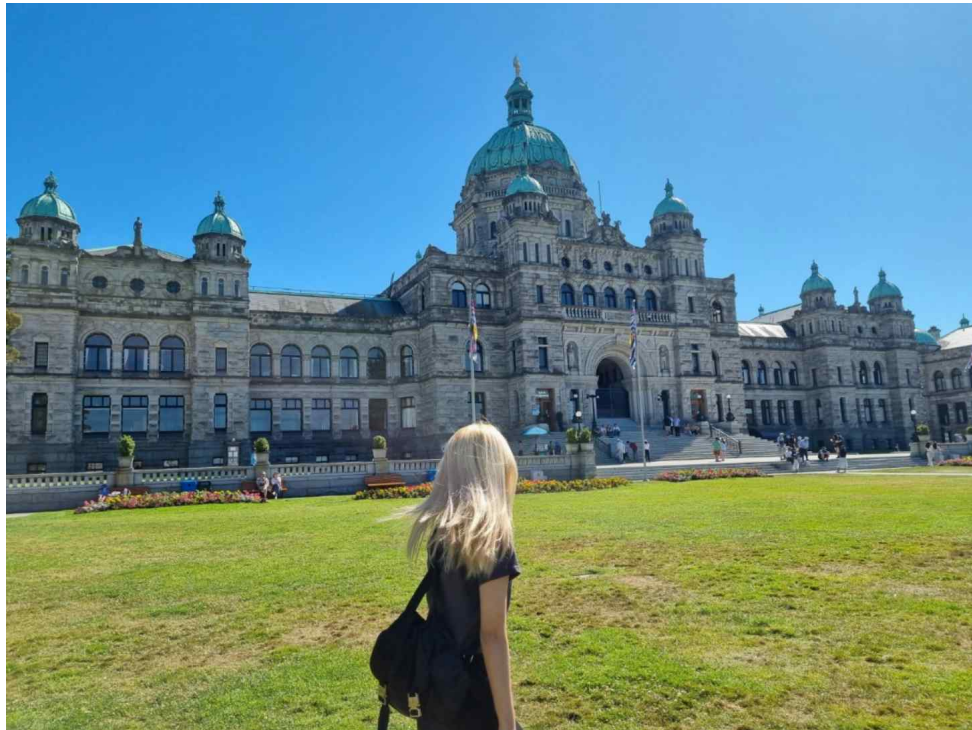
빅토리아 시는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고층 건물이 드물고 한적한 분위기의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매우 안전하여, 저 같은 여성도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위험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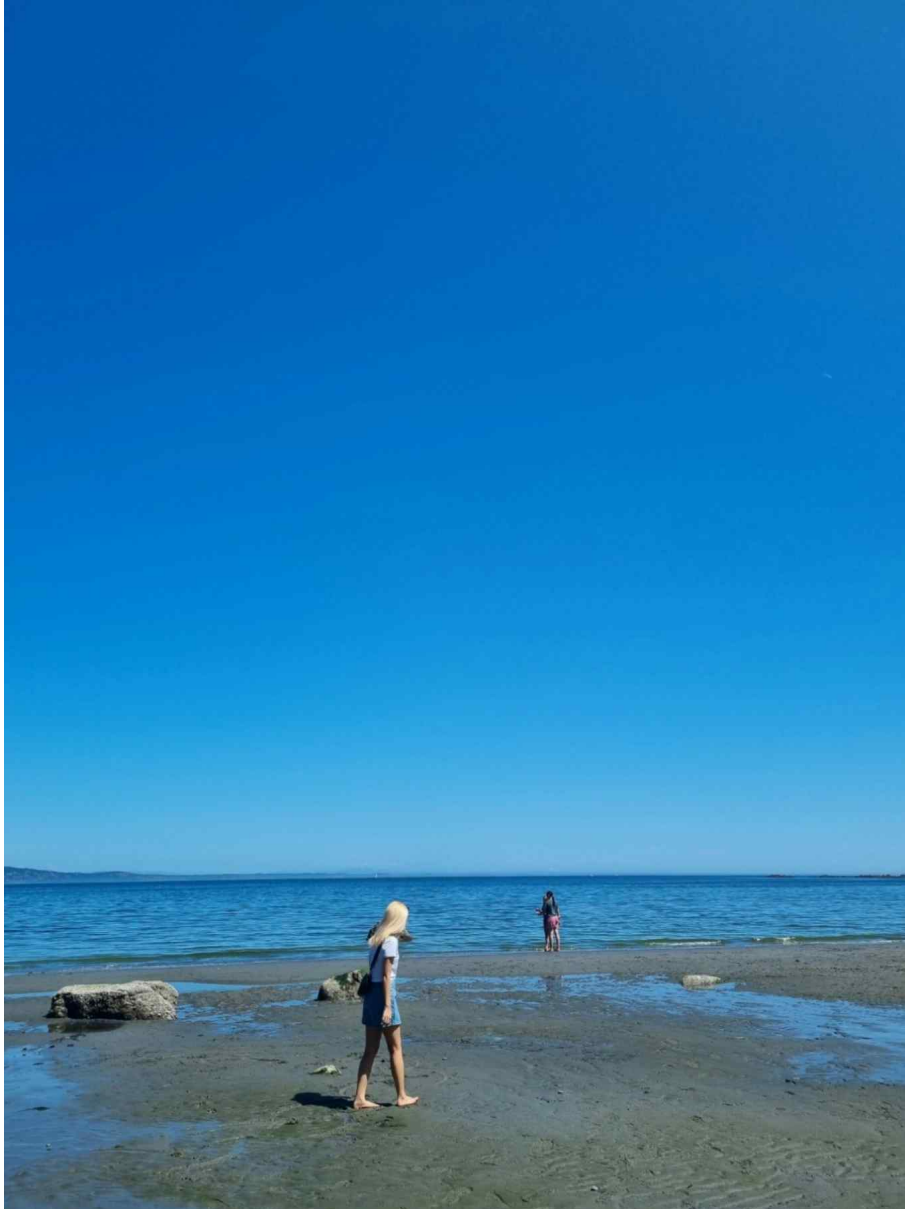
프로그램 첫날에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어, 각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레벨에 배정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배정된 레벨에 맞는 영어 수업이 진행되었고, 점심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후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차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주차와 2주차에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빅토리아

시내와 학교를 소개하는 투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 겸 학교 투어가 있었고, 이어서 빅토리아 다운타운 투어, 빅토리아 박물관 방문, 학교 곳곳을 다니며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 활동, 그리고 시드니 지역 투어 등이 있었습니다. 3주차와 4주차에는 현지인들과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활동, 티셔츠나 가방 만들기 체험, 보드게임 활동 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금요일마다 영화 상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3주차와 4주차 오후, 저녁 프로그램은 1주차와 2주차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종종 오후, 저녁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고 친구들과 빅토리아 다운타운에 가거나 바다를 방문하는 등 자유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카드를 제공해 주어 빅토리아 시내 어디든 무료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자유 시간을 통해 영어 실력은 물론, 캐나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문

### -수업

ELC 프로그램의 첫날에는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은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나뉘어 수업을 듣게 되었으며, 같은 레벨 안에서는 여러 반이 배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3레벨 정도는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수준이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스피킹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얼마나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레벨이 구분되는 것 같았습니다.

4레벨은 원어민과 큰 장애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5레벨은 심오한 주제를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1레벨에 배정되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대부분 듣기 실력도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기초적인 영어 문법과 표현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토론 활동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초 영어 수업과 비슷했으며, 팀 과제도 없고, 주어지는 과제도 매우 쉬워서 약 10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수

준이었습니다.

다른 레벨의 수업에 대해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2레벨의 경우 간단한 주제로 토론도 하고, 매일 과제와 팀 과제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4레벨과 5레벨의 수업은 거의 대부분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오한 주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레벨 수업을 듣는 중에도 원어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배운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언어는 실제 대화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 배운 표현을 써보니 영어에 대한 흥미가 더욱 생겼습니다.

## -현지생활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여름 날씨는 한국과 달랐습니다. 캐나다의 여름은 습하지 않고, 햇빛이 강한 가을 날씨 같았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있는 오후 1~2시에도 기온이 27도 정도에 머물렀고,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해서 긴팔 옷이 필요했습니다. 습기가 없어 한국 여름의 불쾌함이 없었지만, 태양이 강해서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하늘은 한국의 가을 하늘처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을 매일 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을 꼽자면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그 하늘이 그립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해는 떠 있는 시간이 한국과 달랐습니다. 새벽 5시쯤 해가 떠서 밤 9시 반쯤 지기 시작해 10시가 되어야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드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 계획을 세워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 있는 바다에 가보거나, 빅토리아 섬 내에 있는 유명한 정원인 부차드 가든을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식물원에 큰 관심이 없어 가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가보는 것 같았습니다.

빅토리아는 비교적 작은 도시이고 지하철이 발달하지 않아 주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는 구글 지도를 통해 오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버스의 구조는 한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버스 앞부분에는 접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고, 뒷부분은 우리나라 버스와 비슷했습니다. 창문에 달린 줄을 당겨 하차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차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동으로 초록불로 변하지 않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초록불로 바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빅토리아처럼 한적한 시골 도시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1층에는 '코브'라는 카페테리아가 있어, 여기서 세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받았습니다. 음식은 괜찮은 편이었고, 매일 메뉴가 바뀌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기성식품이 놓여 있는 코너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기성식품 중에는 초밥도 있었는데, 한국 쌀이 그리울 때 먹기에 좋았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빨리 가지 않으면 다 팔리곤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물맛이 다소 달랐습니다. 저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캐나다 물이 한국의 물과 다르다고 느끼며 한국의 물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내에 한식당이 있긴 했지만, 음식 가격이 한국의 1.5배 정도라 자주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 -만남과 교류

이 프로그램에는 'CA'라고 불리는 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빅토리아 대학교의 학생으로 아르바이트 겸 봉사활동으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각 반마다 담당 봉사자가 배정되어 있었고, 저도 저희 반 담당 봉사자와 친해져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할까 봐 걱정되어 짧게만 대화를 나누었지만, 봉사자가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어서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반에 찾아와 오후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그때마다 대화를 시도하며 영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영어 실력이 조금이나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 담당 봉사자 외에도 다른 봉사자들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도 대화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처음 대화할 때는 대화 주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학교나 빅토리아에서 가볼 만한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한국에 방문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미국에도 방문해 보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그런 기색 없이 모두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기다려주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인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가 가능해서 일본어로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까운 나라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와 리액션이 달라 신기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목소리가 한 톤 높았고, 모든 것에 귀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일본 친구들도 영어를 잘 구사해서 영어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 출신의 학생과 단둘이 2시간 동안 영어로 대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 나라 사람과 영어로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는 다양한 종류의 옥수수, 감자, 바나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빨간 바나나가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가 참여했던 해에는 한국인 학생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약 80%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영어로만 계속 대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영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 아쉬웠고, 앞으로는 한 국가에서 너무 많은 학생이 참가하지 않도록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험

저는 캐나다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약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의 버스 앞부분에는 접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고, 사람들이 큰 물건이나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탈 때 이 의자를 접어 물건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캐리어나 유모차를 끌고 버스를 타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쉬운데, 이곳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버스에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 오히려 더 편안하게 물건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가용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배려는 큰 짐을 옮기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경험은 시내에서 친구와 놀다가 버스로 돌아오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 정류장에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해 일어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처럼 그분이 버스를 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버스를 타려고 하자, 앞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분이 휠체어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비켜주었습니다. 그 후, 그분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려가 일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장애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듯한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시선이 없어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바뀌

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석이 있는 버스가 있지만, 저는 그곳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뜻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페리에서 의족을 하고 당당하게 걷는 분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것을 보고 한국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나 시애틀에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빅토리아처럼 한적한 곳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 -도전

사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LA 공항을 경유하여 밴쿠버로 가고, 다시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 대학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경유해서 해외로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혼자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LA 공항은 입국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세계적으로 큰 공항이라 짐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아 직접 찾아서 다음 비행기에 보내야 했습니다. 입국심사에 실패하거나 다음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전날 밤을 잠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영어에 자신감도 없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LA 공항에서의 입국심사는 제게 큰 긴장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유니폼을 입고 총을 찬 상태로 저를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심사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go back Korea"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return ticket"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날짜와 티켓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결국 입국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짐을 찾아야 하는 위치와 다음 비행기로 가는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제 시간에 맞춰 다음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빅토리아 대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학 연수의 첫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게 가장 큰 도전은 혼자 밴쿠버에 가서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세계 배낭여행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어학연수 전에 밴쿠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 가려니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안전 문제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영어 실력도 부족했으며,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하는 첫 여행이라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며 계획을 세웠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첫 여행임에도 빡빡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첫 여행이라는 생각에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막상 여행을 시작해 보니, 제가 세운 계획이 현실적이고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밴쿠버 여행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 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시애틀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니 혼자 여행하는 것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든 경험과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밴쿠버는 빅토리아와는 다른 분위기였고, 고층 건물이 많아 한국의 서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날에는 '스탠리 파크'에 갔는데, 해안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느낌의 바다와 인공적인 아스팔트 길,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나무와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느라 힘들었지만, 밴쿠버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를 꼽으라면 스탠리 파크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잉글리시 베이'라는 유명한 바다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이었고, 도시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 사실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배구를 하거나 공놀이를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이곳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보라색 조개 껍질을 발견해 기념으로 주워 한국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여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날 밤에 발생했습니다. 예약한 숙소에서 체크인하려고 보니, 제가 예약한 숙소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였고 곧 해가 질 것 같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약한 숙소는 그곳에서 버스로 40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내내 해가 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숙소로 도착해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음 여행에서는 숙소의 위치를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안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나 안전 수칙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캐필라노 브리지'라는 현수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높고 거대한 나무들을 보며 자연의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체감하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밴쿠버 여행은 매우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으며, 첫 여행치고는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해외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자신 있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밴쿠버의 모든 곳을 다 둘러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연수 참가 후 달라진 점

어학연수에 참가한 후, 저는 영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계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제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주로 질문을 많이 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잘 몰라 간단한 단어로만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는 봉사자와 대화를 나눌 때, 중국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영어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2주차 주말에 과로로 인해 몸이 아파 소중한 주말 시간을 날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밴쿠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좋아하

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맺음말**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죠. 이 말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번 어학 연수를 통해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란 직접 해봐야만 나에게 진정한 감동과 배움을 주며, 이는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경험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담당 교수님을 통해 이번 어학연수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학연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작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고, 스스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척 뿌듯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알려주신 담당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금액 외에도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어학연수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고, 앞으로는 일본어 공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번 어학연수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